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교감(교) 김 덕 용

졸업이란 말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풀이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영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졸업식이란 것을 도리어 시작이란 말의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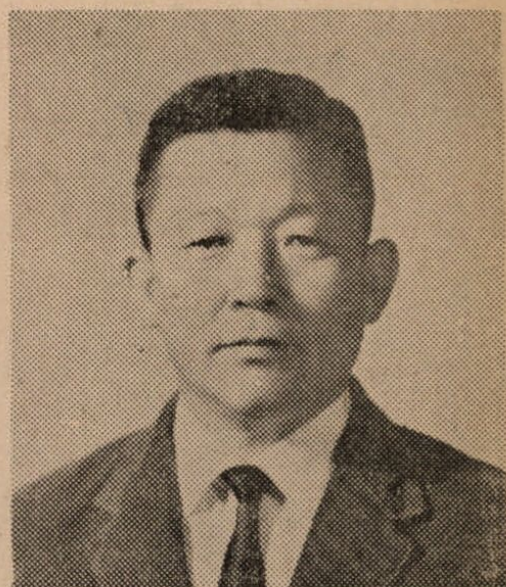
과거의 학창생활을 끝내고 미래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양자의 경계시점을 졸업이라고 부르면 과거를 기준으로 하며 졸업이란 끝내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생 여러분은 가장 변화가 급심한 시기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태반이 학교 생활에서 사회생활로 무대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세가 급전하여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오극체제가 다극체제로 균립하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급속히 움직여서 그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듯 싶습니다.

생활의 장이 학교에서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만도 적응에 힘겨운데 사회 그 자체가 변화의 템포를 가속하고 있는 때 여러분은 졸업하여 그 사회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 합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학교와는 달리 사회에는 너무도 모순된 여러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점들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하이틴의 여자세계, 그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잡다이질적인 생각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른 것들이 태연하게 공존하고 있는 그것들 속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전부가 다 활동하고 변하여 가고 바쁘게 자기 이익 추구에 열중하여서 남이라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극히 냉정한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과거의 18년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선생님의 보호 지도하에 안이한 매일을 지내며 사물을 우리 쪽과 남의 편, 또는 선



과 악 두가지로 나누어 판단하는 관습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내가 선의 중심인 양 생각해 왔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잡다한 상호모순을 또 선과 악이라든가 우리 편과 적의 편 식으로 2차적 사고방식을 연장 시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들은 여러분의 눈에는 더 많은 악으로 비추어 질지도 모르며 여러분의 주위에는 악인들이 득실거린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생각일 것이며 또 자기를 궁지에 몰아 넣는 생활 태도가 될 것입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보기에 모순되는 듯한 여러가지 것들이 모두 그 존재 이유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민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고 다양성이 있는 것을 긍정하면서 다같이 발전해 가도록 추진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징이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면하려는 사회에서는 자신과 일치하는 것에 대한 것처럼 불일치의 것들에 대하여도 그 존재 이유를 긍정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부딪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일단은 인정하고 그것의 진가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앞으로 생활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선과 악의 두가지로만 구분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긍정의 이유를 두려는 다체적 사고방식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받아 들이고 하는 생활을 잘 해나가느냐 잘못 해나가느냐가 사회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인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계속 공부도 잘하고 한가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여러 사람들의 여러가지 말을 잘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알아두는 생활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폐쇄된 사회와 개방된 사회가 있듯이 “마음”도 폐쇄된 마음과 개방된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집이 센 것을 폐쇄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말하고 듣는 태도를 몇가지로 분류하여 봅시다.

1. 갑이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갑이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믿는다.
2. 갑은 믿지만 그말은 좀 이상해서 믿어지질 않는다.
3. 갑은 신용할 수 없지만 그말은 내용이 믿을만 하다.
4. 갑은 믿을 자가 못 되니까 그 말도 믿질 않는다.

라고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와 마지막 것은 우리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불합리한 폐쇄적 태도입니다. 반대로 둘째와 셋째가 합리적이고 개방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방된 마음의 소유자로 사회에 행세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써 있는 비뚤어진 바리새파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바로 그들이 폐쇄된 마음의 소지자의 상습적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그토록 급격히 변천하는데 내부 즉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생활의 낙오자가 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 타고 5시간 걸리던 서울-인천간을 지금은 30분에 택시로 갈 수 있을 만큼 모든 부면에서 변했는데 그 변화의 이유와 변화의 현상과 방향을 배워서 아는 것을 지식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즉 외재하는 변화를 아는 것을 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 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외재 변화가 내재 변화를 불러 일으켜서 생활의 힘이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활의 힘을 가진 사람을 지혜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우리사회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